

# 오늘 노무현 10주기 여야 대거 봉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인 지난해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등이 추도식을 마치고 참배를 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와 6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추도식을 찾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대부분 참석할

### 문희상·이낙연·이해찬 참석...황교안은 참석 안해 10주기 맞아 부시美 전 대통령 盧 초상화 들고 참석 유시민 모친상·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판으로 불참

예정이다. 그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 일정과 겹쳐 나오지 못한다.

김일기 전 국회의장, 임재정 전 국회의장과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지은희 전 환경부 장관도 참석할 뜻을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유성엽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도식을 찾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추도식에는 10주기를 기념해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손수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족 측에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

월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무현재단에 전달했고 재단은 두 정상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14장의 사진을 전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 문희상 의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노영민 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권 여사는 부시 전 대통령의 초상화에 대한 답례로 두 대통령을 함께 세진 관화 작품과 노무현재단에서 제작한 10주기 특별상품을 선물할 계획이다.

추도식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교정의 사회로 진행된다. 유족 대표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인사말을 준비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이낙연 총리의 추도사도 예정돼 있다.

뉴스

## 유시민 “정치 복귀 한순간도 생각 안해...정치인 일상 남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정계복귀설에 대해 “정치를 떠난다고 SNS에 올린 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 출마하는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이사장은 21일 KBS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봉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정치를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단 한 순간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정계복귀설에 대해 ‘뇌피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대답이 곤란한가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니다. 안 곤란하다”며 “요즘 행사가 많아서 다니다보니 온갖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답했다.



답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은 10주기를 맞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

TV 나와 “머릿속에 뭉게구름 만들어 비평하지 말라” 당부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언급엔 “잘못 듣고 재치있게 답하려”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정치 일상 건디기 아주 힘들어”  
재단 이사장 임기 후엔 “아무 직책없는 작가로 돌아갈 것”

“뇌피셜”이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나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검증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유 이사장은 “최근 토크쇼하면서 말이 오가면서 부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나온 걸로 머릿속에서 뭉게구름을 만들어 비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안 한다고 하는 것 보니 정말 하려나보다’ 라는 식의 말은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말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 하게 되면 욕하 시라”고 이야기했더니 “나 할 거 나 욕해라 (라고 받아들여진다.) 말이 진짜 어렵다”며 “정리하면 단 한 순간도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원래 중이 자기 머리카락은 못 깎는다”고 언급한 게 정계 복귀설로 불을 지핀 데 대해서는 “제가 무대에서 잘 못 알아듣고 재치있게

면서 “남루하고 초라한 정치인의 일상을 견디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며 “저는 저런 걸 못 견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해야 하나. 내가 왜 꼭 대통령이 돼야 하나. 우리 사회에 대해 내가 전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뭐가. 내가 이런 남루한 일상을 견디라고 세상에 온 건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잠시간 저런 쓸쓸하고 남루한 정치의 일상을 견디는 게 해보니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그만뒀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기가 2021년 10월까지로 2년 반 남았다”며 “그 다음에는 아무런 직책 없는 작가로 (돌아간다) 지금도 작가는 생업으로 하고 있고, 해마다 책 한 권씩 내야 노후자금도 비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

## 이해찬 “황교안, 강경 발언 능사 아냐...오늘부터 제발 그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내 (인사)가 아니시니까 원외로 다니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말씀 삼가실 건 삼가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黃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 文 대통령 비판  
李, 최고위에 이어 의총에서도 黃 거듭 지적  
“거리투쟁하더라도 정도(正道) 걸으면서 해라”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 중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5·18 망언 의원들이 속한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며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한 마디 못하니 여기저기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원외를 다니시면서 여러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너군다나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까지 지낸

분이 국민이 걱정하는 그런 발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제1야당이 거리투쟁 나선 지가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나가서 활동하는 건 좋는데 하시는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다”면서 “어제까지 (말씀)하신 거까지는 다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오늘부터는 제발 좀 안하셨으면 좋

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다. 활동하시더라도 정도(正道)를 걸으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간곡히 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튿날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낮춘 데 대해서는 “올해 확장 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추경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현재 6조7000억원 정도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하여서는 “10주기 추도식의 개념은 ‘새로운 노무현’으로 잡았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5월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아주 슬프고 잔인한 달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5월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5월을 만들어 가는 의미로 개념을 잡았다고 노무현재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 전했다.

이 대표는 농담조로 “살포시 간접공을 하나 하겠다”며 “노무현재단에서 올해 10주기를 맞이해 창덕궁 옆에 노무현 시민센터를 착공했는데 조만간 기공식을 한다. 건물 지으면서 특별모금을 시작했는데 의원님들 형편에 맞게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재단 측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의총에서 추인하는 등 신입 원내대표단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김은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